

K-콘텐츠 커졌는데 유통은 뺏겼다... 국내 OTT 입지 '흔들'

BTS 컴백공연, 넷플릭스 생중계 토종 OTT, 인프라·자본력 부족 해외 플랫폼, 유통 주도권 가져가 국내 플랫폼 간 연합 등 대안 제시

넷플릭스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면서 글로벌 OTT의 라이브 콘텐츠 장악력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K팝 대표 IP가 초대형 글로벌 플랫폼의 실시간 콘텐츠로 소비되면서 국내 OTT의 입지는 오히려 더 좁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공연은 광화문이라는 상징적 공간, BTS라는 초대형 IP, 글로벌 동시 송출이라는 흥행 요소를 모두 갖춘 이벤트였다. 그러나 정작 국내 플랫폼은 이 무대에 참여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국내 OTT가 콘텐츠 제작을 넘어 라이브 유통 경쟁에서도 사실상 뒤처져 있음을 보여준 장면이라고 보고 있다.

기존 OTT 경쟁이 드라마와 예능, 영화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스포츠와 콘



(왼쪽부터) 브랜드 리그 넷플릭스 VP, 김현정 빅히트 뮤직 VP, 유동주 하이브 뮤직그룹 APAC 대표, 개럿 잉글리쉬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20일 BTS 컴백 아리랑: 아리랑의 사전 미디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넷플릭스

서트, 팬 이벤트 같은 라이브 콘텐츠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가입자를 묶어두는 힘이 강하고, 플랫폼 기술력과 동시 접속 처리 능력까지 함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이미 스포츠와 각종 글로벌 이벤트를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 역량을 키워왔고, 이번 BTS 공연으로 K팝 라이브까지 영향력을 넓혔다.

반면 국내 OTT는 이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로컬 중심 가입자 구조에 머물러 있는 데다 초대형 라이브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인프라와 자본력도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에서 기획되고 소비 기반이 형성된 콘텐츠조차 글로벌 유통 단계에서는 해외 플랫폼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특히 이번 공연이 공공성이 큰 광화문광장에서 열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국가 이미지와 관광 효과를 동반한 상징적 이벤트였지만, 콘텐츠 유통 성과는 국내 플랫폼이 아닌 넷플릭스가 가져갔기 때문이다. K콘텐츠의 가치가 커질수록 국내 사업자는 제작과 흥행의 기반만 제공하고, 실제 글로벌 유통 주도권은 해외 플랫폼이 쥐는 흐름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토종 OTT의 과제도 더 분명해졌다는 분석이다. 단순히 오리지널 드라마 경쟁에 머물 것이 아니라 라이브 콘텐츠를 감당할 기술력과 자금력, 그리고 유통 연합 구조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티빙과 웨이브의 결합 논의가 다시 주목받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이 나와야 K팝이나 스포츠 같은 대형 콘텐츠 유통 협상에서 최소한의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번 사례를 완전한 패배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글로벌 라이브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만큼, 국내 플랫폼이 향후 공

동 중계나 비독점 유통, 기술 협업 모델을 현실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해외 플랫폼 진출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국내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든 수익 구조와 유통 구조 안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해석이다.

결국 이번 BTS 광화문 공연은 K팝의 위상을 보여준 무대이면서 동시에 국내 OTT 산업의 한계를 드러낸 시험대였다. 콘텐츠 경쟁력만으로는 유통 주도권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제는 국내 플랫폼이 관전자에 머물지 않을 전략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국내 OTT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제 경쟁은 오리지널 드라마가 아니라 대형 라이브 콘텐츠를 누가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송출하느냐로 옮겨가고 있다"며 "국내 플랫폼이 계속 관전자에 머물면 K콘텐츠가 커질수록 해외 플랫폼 영향력만 더 커지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metro

삼성SDS, GPUaaS로 AI 추론시장 공략

(GPU 구독형 서비스)

B300 GPU, 데이터 병목 문제 완화 기업·공공기관 AI 전환 수요에 대응

삼성SDS는 자사 클라우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을 통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 'B300(블랙웰 울트라)' 기반 GPU 구독형 서비스(GPUaaS)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업들이 AI 모델 개발 단계를 넘어 실제 서비스 적용 단계인 'AI 추론'으로 이동하면서 증가하는 고성능 컴퓨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B300 GPU는 고대역폭 메모리(HBM3E)를 탑재해 GPU당 288GB 메모리와 초당 8TB 수준의 대역폭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 H100 대비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이 각각 3배 이상, 2배 이상 향상된 수준으로, 대규모 AI 모델 운용 시



삼성SDS는 자사 클라우드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을 통해 엔비디아의 최신 GPU 'B300(Blackwell Ultra)' 기반 GPU 구독형 서비스(GPUaaS)를 국내 최초로 출시했다. /삼성SDS

발생하는 데이터 병목 문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삼성SDS는 A100, H100에 이어 최신 GPU 기반 서비스까지 확장하며 클라우드 기반 AI 인프라 제공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번 GPUaaS를 도입하면 기업은 초기 인프라 투자 없이 필요한 만큼 자원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 있으며, 대용량 AI 모델 처리나 AI 에이전트, 영상·이미지 생성 등 고성능 서비스의 응답 지연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삼성SDS는 올해 3분기 중 사용량 기반 과금 방식의 서버리스 AI 추론 서비스와 자동 분산학습 기능을 제공하는 AI 학습 서비스를 추가로 선보일 계획이다.

삼성SDS는 GPUaaS를 통해 기업과 공공기관의 AI 전환 수요에 대응하고, 클라우드 기반 AI 인프라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카카오, 4대 과기원과 'AI 돛' 띄운다

지역 인재·스타트업 육성 본격화

카카오가 4대 과기원과 손잡고 '카카오 AI 돛'을 출범하며 500억 원 기금을 기반으로 비수도권 AI 인재·창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카카오그룹이 23일 대전 KAIST 학술문화관에서 한국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대구경북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과 'AI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기반 AI 생태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협약은 비수도권 중심의 인재 양성과 창업 지원을 통해 AI 산업 저변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다.

카카오는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 AI 돛'이라는 추진 기구를 설립한다. 해당 조직은 AI 투자와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한계를

보완하고, AI 인재와 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명칭에는 바람을 받은 돛처럼 지역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카오가 지난해 9월 조성한 500억 원 규모 AI 육성 기금을 기반으로 추진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4대 과학기술원 AX 전략'과도 맞물리며 산학 협력 중심의 AI 확산 정책과 보조를 맞춘다. 행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해 정책적 연계성을 강조했다.

'카카오 AI 돛'은 ▲과기원 중심의 현장형 AI 인재 양성 ▲카카오의 기술과 인적 자산을 활용한 창업 지원 ▲지역 산업 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 협력 AX 프로젝트 등을 핵심 축으로 운영한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 정기주총서 5개 안건 모두 통과

김희철 CFO 사내이사 선임

네이버가 2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그린팩토리에서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상정된 5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주총에서는 제27기 재무제표 승인, 상법 개정에 따른 정관 일부 변경, 사내이사 김희철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이배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이 처리됐다.

이번 주총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희철 네이버 CFO의 사내이사 선임이다. 네이버 CFO가 이사회에 합류한 것은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이다. 업

계에서는 글로벌 투자 확대와 AI 사업 경쟁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재무 전략과 투자 판단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CFO의 이사회 합류를 통해 재무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김이배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재선임 안건도 함께 통과됐다.

정관 변경 안건도 이날 의결됐다. 앞서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관 개정에는 상법 개정 사항 반영과 함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등이 포함됐다. 네이버는 이번 주총을 통해 이사회 운영 체계와 지배구조 정비를 병행하며 제도 변화에 대응하는 모습이다. /최빛나 기자



네이버 주주총회 현장 /네이버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올해도 주주 가치 제고를 최우선으로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AI 에이전트를 전면 도입하고, 네이버 플랫폼에서 축적한 AI 역량을 B2C와 B2B 전 영역으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도전을 통해 혁신을 이뤄내며 경쟁력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CJ올리브네트웍스, 파트너십 체계 개편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CJ올리브네트웍스는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주요 협력사를 초청해 '2026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협력사가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협력사들이 공동 프로젝트 성과와 협업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 전략과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매년 거래 규모와 사업 기여도 등을 기준으

로 전략협력사를 선정·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엠토스솔루션스와 씨에스피아가 우수협력사로 선정됐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IBK기업은행과 함께 조성한 100억 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통해 협력사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무 부담 완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전략적 파트너십 체계를 개편해 우수 협력사에 사업 참여 기회와 우선권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보증보험 면제, 대금 지급 조건 개선, 판로 지원 등 기존 지원 정책은 유지된다. /김서현 기자